

창조에서 새로운 창조까지

창세기 1:31; 요한복음 1:1-4

2022년 1월 30일 설교

버지니아 중국기독교회 존 추아 목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일한 의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소개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질문 5: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답: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모든 창조물은 심히 좋았습니다. 그의 사랑스러운 통치 아래 모든 것이 번성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는 많은 눈을 내리고 있습니다. 1월 한 달에만 이미 10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설량보다 많은 양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눈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삽질하는 눈을 싫어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오는 날 학교에 갈 필요가 없고 눈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눈꽃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또는 돋보기를 사용하여 눈송이의 패턴을 관찰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눈송이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조차 그 패턴에 놀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눈송이가 아무리 가볍고 작더라도 결정은 항상 육각형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눈송이를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설계자이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그 광대함 안에서 이것이 그분의 창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바라보고 일출과 일몰과 밤의 달과 우리 몸의 복잡한 구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우리는 창조의 전체 질서와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느니라... 이제 그의 눈을 주신 신실한 백성은 그의 영광의 광채와 같은 것이 피조물마다 반짝이는 것을 보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 되도록 지음이 된 것이 틀림없다.”

Point 1.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존 칼빈이 지적했듯이, “세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된 것은 신성한 영광의 극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할 때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 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쁨도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간은 우상숭배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돌을 알아볼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조각상에 절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 우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왜곡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 그릇된 이해를 가질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는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십시오.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소유, 직업, 관계, 취미, 스포츠, 오락, 목표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등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 이들 중 일부는 죄를 짓는 행위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우리의 경력 및 관계처럼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필요로 한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일하신 참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우상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실망과 죽음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공허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으로 테니스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배드민턴 라켓은 분명히 테니스 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것을 숭배한다면, 그는 그의 생명을 남용한다. 그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는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면 피곤하고 공허합니다.

Point 2.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매우 좋았습니다

질문 5에 대한 새 도시 요리문답의 대답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모든 창조물이 심히 좋았더라 만물이 그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더라"입니다. 그의 모든 창조물이 매우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맨 처음 말씀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이 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흑암이 깊음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 즉, 피조물이 없다면 지구는 형체도 없고 완전한 암흑 속에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처음 6일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태를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3일인 4일부터 6일까지는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공허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어둠과 갈라짐.

2일차: 바다에서 생성되고 분리된 대기.

3일차: 물과 땅이 창조되고 갈라짐.

4일: 하늘을 채우기 위해 창조된 해, 달, 별.

5일차: 하늘과 물을 채우기 위해 창조된 생물.

6일차: 땅을 채우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 인간은 창조의 정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7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신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조의 반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가시면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빼앗으면 사망입니다.

창세기의 장을 읽으면서 사망과 흑암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살아남은 8명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면 모든 선한 것이 악이 됩니다.

이제 Day 6에 집중합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

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들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함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바로 뒤에 오는 것은: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주권과 왕권과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 사람이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내가 창조한 인간의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왕과 여왕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진화론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물질적 소유와 육체적 안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물질주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삶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무관심). 이 사람들이 모두 틀렸어!

창세기 1장에서는 타락 이전, 원죄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세상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과 왕비입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후에 땅에 대한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많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우리는 배우자, 자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깨어진 관계, 깨어진 결혼, 깨어진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세계와 우리의 관계조차도 더 이상 조화롭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 삶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 활동이 지구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많은 인간 활동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말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 존엄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살았던 아름다운 곳도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최종 지점으로 이끕니다. 새로운 창조.

Point 3.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구속 계획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것을 즐깁니다. 새로운 것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에 대해 흥미진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iPhone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 차를 갖고 싶어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어떨습니까?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의 첫 구절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시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헬라어로 ”태초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의 첫 문장인 ”태초에”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하시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서는 말씀(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창조세계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천지창조를 설명한 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물과 땅과 하늘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이러한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한 사람에게 관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요컨대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단계는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의 본성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리라” 타락으로 인해 상실되고 부서지고 타락한 모든 것은 구속을 통해 시정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응답: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소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 말미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쓴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31)

우리는 어떻게 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과 죄를 이기고 미래의 영광을 얻습니다.

전염병은 죽음의 공포와 우리의 육체적 삶이 연약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전염병이 없어도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마신다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자.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17)

기도:

창조의 선함을 일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진리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당신의 섭리를 믿고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당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